

# 호주의 쌀산업과 글로벌 쌀기업 SunRice\*

김 병 루

호주의 쌀 농업의  
현황과 글로벌 쌀  
기업 SunRice에 대  
해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머리말

세계 인구에서 쌀을 주식으로 의존하는 비율은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쌀 생산량 4억 3천만 톤 중에서 7%인 3천만 톤만이 매년 교역되고 있어 밀 등 다른 곡물의 교역 비율(밀 20%, 옥수수 10~12%, 대두 35%)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탄력적인 수급구조에 가격변동이 심한 구조를 띠고 있다. 2008년 곡물파동 때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은 가격이 100~200% 정도 상승했지만 유독 쌀값은 300% 가까이 급등하였다. 이러한 쌀 가격과 공급 시스템의 혼란 또는 붕괴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향후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제곡물가격이 카길, ADM, 루이스 드레피스, 병게 등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나, 호주의 글로벌 쌀 기업인 SunRice는 이들과 달리 쌀 생산자 협동조합 기업이면서 일본 등 동북아시아와 남부아시아, 중동,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걸쳐 브랜드 쌀과 쌀 가공품들을 지난해만 해도 50만 톤을 판매하여 9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곡물메이저들 틈새에서 호주의 SunRice가 글로벌 쌀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은 세계적인 수출농기업을 육성하고자 희망하는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개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9억 달러의 수출액은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선키스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 본 내용은 호주 ABARE가 발간한 보고서 및 호주 출장 결과를 토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brkim@krei.re.kr, 02-3299-4317).

이스라엘의 아그레스코의 매출액과 견줄만큼 세계적으로 성장한 수출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쌀 제품 하나로 세계시장에 50만 톤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성과는 물량 면에서는 세계 전체 쌀 교역량 3천만 톤에 비하면 1.7%의 미미한 수준이나 다양한 가공품으로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판매한 마케팅전략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조사출장을 다녀온 결과, 호주의 쌀 농업의 현황과 글로벌 쌀 기업 SunRice에 대해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호주의 농축산업과 물 부족

호주의 인구는 2008년 2,130만 명으로 1960년대 이후 변함없이 매년 20~30만 명씩 늘어났으며 2000년 들어 3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호주 인구 중에서 고용인구는 인구의 절반인 1,074만 명이며, 그 중에서 농업부문 종사자수는 31만 8천명으로 3%이며 임업, 어업을 포함하면 35만 8천명이다. 농업부문 종사자 수는 2003년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업생산 위축으로 15%나 급감한 이후 2002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 고용인구의 절반정도는 임금 고용자로서 기업 농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

농업 경영체 수는 2007-08년 14만 개다. 2006년의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농 경영체 수가 10만 명 수준이며, 나머지는 법인체로 4만 여개로 추정된다. 경영체 중에서 유무 방목 경영체가 전체의 30%로 중심을 차지하며 소와 양을 사육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국토면적 7억 6,869만ha 중 방목용 초지를 포함한 농경지 면적은 55%인 4억 2,545만ha이다.

표 1 호주의 농촌 고용형태

단위: 천 개(명)

연도	농업경영체	농촌 고용			계
		자영 또는 고용주	임금 고용	가족 인력	
'94/95	147.1	227.5	146.5	26.8	400.8
'00/01	135.4	211.8	213.0	13.0	437.8
'05/06	154.5	161.8	176.3	10.0	348.0
'06/07	150.4	166.8	176.5	7.0	350.3
'07/08	140.7	171.0	173.8	7.3	352.0
'08/09	na.	176.5	173.5	7.8	357.8

자료: 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9.12.

호주의 국토면적 7억 6,869만ha 중 방목용 초지를 포함한 농경지 면적은 55%인 4억 2,545만ha이다. 대부분의 농지는 방목 등 축산용으로 이용되며 순수한 작물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5.5%인 2,353만 ha로 우리나라의 13.4배에 달한다. 또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개농지는 0.5%인 192만 ha로 우리나라 농지면적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표 2 호주 농경지 면적

단위: 천 ha

구분	2006	2007
농경지 면적	434,925	425,449
작물 면적	24,565	23,530
관개 면적	2,546	1,923
국토 면적	769,202	769,202

자료: ABS, Australian Farming in Brief, 2008.

전체 농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밀 재배면적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가축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이다.

표 3 호주 작물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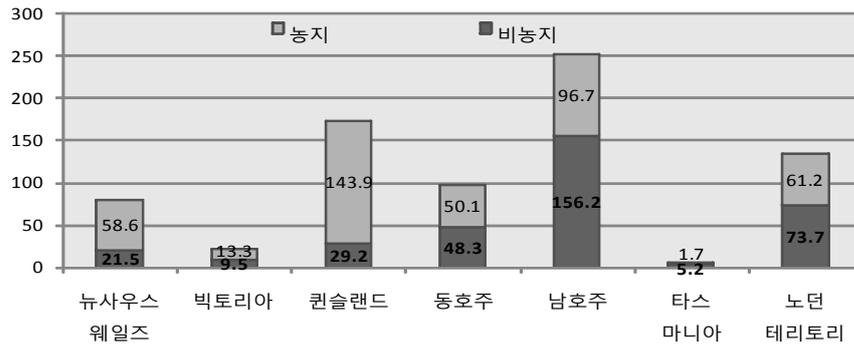
단위: 백만 ha, 백만 두

연도	작물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밀	기타 작물	농지면적	소	젖소	양
2000/01	12.1	10.4	455.7	24.45	3.14	110.93
2005/06	12.4	10.3	434.9	25.32	2.86	91.03
2006/07	11.8	9.8	425.4	25.61	2.79	85.71
2007/08	12.6	11.1	417.3	24.78	2.66	76.94
2008/09	13.2	10.8	na.	24.78	2.55	71.56

자료: 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9.12.

지역별로는 강수량이 많은 퀸스랜드주(QLD)와 뉴사우스웨일즈주(NSW)의 농업 용지 비중이 높다.

그림 1 호주 지역별 농지 면적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호주의 경제동향과 농업 개황, 2009.3.

호주의 농축산물 생산액은 1990-91년(회계년도: 7월부터 익년 6월) 212억 달러, 2000-01년 348억 달러, 2008-09년 451억 달러(약 47조 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51억 달러 중에서 가축 생산(도축)과 축산물 생산액이 44%인 197억 달러이며, 곡물 및 대두가 26%인 117억 달러, 채소, 과일 등 기타 작물이 30%인 136억 달러를 생산하였다.

호주의 농축산물 생산액은 1990-91년 212억 호주달러, 2000-01년 348억 호주달러, 2008-09년 451억 호주달러(약 47조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 호주의 농축산물 생산액

단위: 백만 호주달러

연도	작물			축산			총 생산액
	곡물과 유지작물	기타 작물	계	가축 도축	축산물	계	
1990/91	3,467	5,654	9,121	5,739	6,354	12,093	21,214
1995/96	7,470	8,177	15,647	6,431	5,707	12,138	27,785
2000/01	8,701	10,358	19,059	9,738	5,983	15,721	34,779
2005/06	8,823	12,076	20,899	11,960	5,836	17,796	38,695
2006/07	5,080	12,915	17,995	12,335	5,917	18,252	36,247
2007/08	10,754	13,414	24,168	12,109	7,412	19,521	43,689
2008/09	11,710	13,670	25,380	13,255	6,490	19,745	45,126

자료: 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9.12.

농축산물 수출액은 2008-09년 320억 달러로 생산액의 71%에 달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호주 전체 수출액의 11.2%를 담당하고 있어, GDP 중 농업 비중 2.5%를 감안하면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가축과 축산물 수출액이 152억 달러로 수출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곡물과 유종실 수출액이 79억 달러이다. 수출 품목 중 쇠고기, 밀이 각각 농산물 수출액의 15%씩 차지하며 생우까지 포함하면 17%로서 가장 중요하다. 밀, 쇠고기에 이어 낙농제품, 양모, 와인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지역별로 호주의 주요 수출지역은 아시아와 중동으로 2/3를 점유하고 있다. 국별로 일본이 최대 수출국(16%, 52억 달러)이며 중국에 32억 달러, 미국에 30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26억 달러, 한국에 18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표 5 농림어업 수출액과 비중(2008~09년)

단위: 백만 호주달러

구분	농업	임어업	총 재화	서비스	총 수출액
2007/08	27,530	3,813	182,818	51,035	233,853
2008/09	32,027	3,872	231,728	53,973	285,701
비중(%)	11.2	1.4	81.1	18.9	100.0

자료: 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9.12.

표 6 품목별 수출액과 비중(2008~09년)

단위: 백만 호주달러

구분	2007/08	2008/09	비중(%)
<b>곡물과 유지작물</b>	<b>5,240</b>	<b>7,868</b>	<b>24.6</b>
밀	2,990	5,028	15.7
보리	1,496	1,321	-
사탕수수	76	405	-
쌀	71	31	-
캐놀라	303	595	-
<b>공업용 작물</b>	<b>13,027</b>	<b>16,862</b>	<b>52.6</b>
원면	466	500	-
설탕	1,006	1,335	-
포도주	2,683	2,428	7.6
<b>육류 및 동물</b>	<b>6,333</b>	<b>7,329</b>	<b>22.9</b>
쇠고기	4,190	4,857	15.2
생축	451	559	-
양고기(Mutton)	443	482	-
새끼양(Lamb)	803	925	-
<b>양모</b>	<b>2,796</b>	<b>2,321</b>	<b>7.2</b>
<b>낙농품</b>	<b>2,763</b>	<b>2,679</b>	<b>8.4</b>
<b>축산물 전체</b>	<b>14,503</b>	<b>15,165</b>	<b>47.5</b>
<b>농축산물 전체</b>	<b>27,530</b>	<b>32,027</b>	<b>100.0</b>

자료: 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9,12.

농업용수 공급형태는 정부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개시설체계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형태와 개인관개시설에서 용수를 이용하는 형태가 있다.

호주는 매우 건조한 나라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강우량의 편차가 심하고 가뭄이 반복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강우량의 10% 정도만 지표수나 지하수로 유출되어 이용이 가능하여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이다. 호주의 많은 지역이 600~1,50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나 면적의 절반이 300mm 이하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전체 평균 강수량은 364mm이다. 이에 따라 물 수요 충족을 위해 수자원 중 20% 정도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수자원 가용성(availability)이 매우 낮다.

농업용 물소비량은 호주 전체 물 소비량의 2/3인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91%가 작물 및 목초생산에 사용되며 9%는 가축의 음용수 및 세척수로 사용된다.

물소비량은 머리달링 유역(MDB), 호주 남동부지역, 퀸즈랜드(QLD)의 남동부지역, 서호주(WA)의 남서부지역들이 호주 나머지 지역의 물소비량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호주 전체 지표유출수의 6%밖에 차지하지 않는 머리달링 유역에서는 실제로 호주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의 용수량을 사용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형태는 정부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개시설체계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형태와 개인관개시설에서 용수를 이용하는 형태가 있다. 정부지정기관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용수 이용자는 공급받는 용수량에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지정 관개시설 운영자는 정부에서 운영허가권을 발급받아 관할구역 관개

시설 운영과 사용자에게 용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관개용수공급업체는 공사 형태로 조합원(관개인)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조합원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개인관개시설은 개인적으로 농지 안에 직접 건설한 소규모 댐이나 하천에서 직접 양수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건설 및 운영비는 농업인이 직접 부담하며 관개용수의 저류와 공급에 드는 비용은 없다. 농업용수 이용자는 취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쌀 생산은 기본적으로 담수재배가 필요하고, 와인용 포도재배의 90%가 관개용수로 재배하고 있다. 그 밖에 원예·채소·목화재배에도 관개용수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 하천수계는 호주 동부의 머리-달링강 수계이며, 그 외에도 서호주(WA)의 Kimberley구역 Ord강과 퀸즈랜드(QLD), 서호주(WA) 남서부, 빅토리아(VIC) MacAlister 지역에 위치한 Burdekin강이 있고, 지하수원으로는 Great Artesian Basin이 있다. 호주 전체 농가의 42%가 머리-달링강 유역에 밀집해 있어 가장 중요한 수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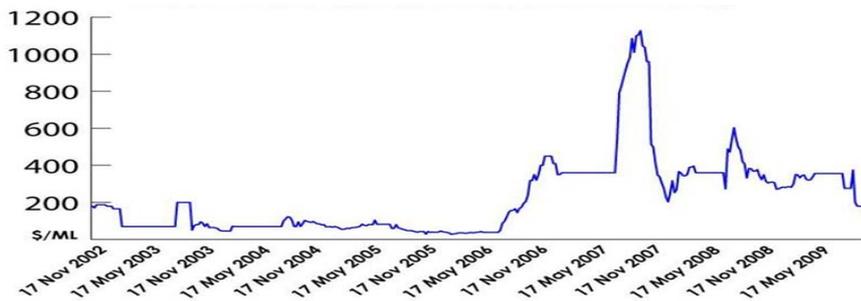
물관리 관련 조직으로는 국가경쟁의회(NCC; National Competition Council), 국가수자원구상(NWI; National Water Initiative), 국가물위원회(NWC)가 있으며,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the Future) 프로그램에서 관개시스템의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머리-달링강 유역에 투자되고 있다.

호주는 특히 2002년 이후 2009년 중반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강과 지류들, 저수지들이 메말라 있다. 호주의 지속된 가뭄으로 연방정부는 물환매체제(Water Buyback Scheme)를 만들었으며 지방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었다. 물 사용자들은 물이용권을 영구히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였다. 호주는 물 사용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지속된 가뭄으로 물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6년말 이후 최근까지 물 배분가격이 급등하였으며 2009년 후반에 와서야 강우로 인해 부분적으로 해갈되어 물 공급가격이 하락하였다.

호주에서 쌀 생산면적이 급격히 줄어든 데는 물 사용권을 벼 재배에 이용하는 것보다 과수나 원예 등에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벼 재배농가가 다른 작물 재배농가에 물 사용권을 팔았기 때문이다.

호주는 2002년 이후 2009년 중반까지 가뭄이 지속되어, 연방 정부에서 물환매체제를 만들었다.

그림 2 호주 물럼비지 관개지역(M.I.A.)의 물 공급가격 추이



자료: 2010 ABARE OUTLOOK.

### 3. 오주의 쌀산업 현황과 전망

호주의 쌀 생산면적은 2001년에 최대인 17만 7천ha로 조곡기준 164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최근 쌀 생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생산량 역시 수확면적 감소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공업국과 같이 호주에서도 감자가 전통적인 탄수화물 공급원이다. 반면 쌀은 전통적으로 카레와 섞어먹는 부식 또는 디저트 식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한국으로부터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아시아계 식당이 늘어 쌀이 주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부상하였다. 호주 사회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호주인들도 가정에서 아시아 식품 등 쌀을 주재료로 이용하는 요리가 늘어나고 관심이 커져 쌀 시장이 확대되었다.

호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30~40만 톤 정도 소비되고 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4~19kg에 달한다.

호주의 쌀 생산면적은 2001년에 최대인 17만 7천ha로 조곡기준 164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최근 쌀 생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6-2002년간 평균 수확면적은 150,000ha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2,160ha로 감소하였다. 농가당 생산면적은 1996-2008년간 평균 57.5ha로 큰 변화가 없다.

생산량 역시 수확면적 감소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호주는 세계 쌀 생산량의 0.2%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6-2002년간 약 2,300 농가에서 연 평균 126만 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2003-2007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2003년의 경우 2002년의 약 4분의 1인 44만 톤, 2007년에는 16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38농가, 2,160ha, 18천 톤 생산되었다. 2009-2010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2009년에 63천 톤, 2010년에는 200천 톤이 예상된다.

표 7 호주 쌀 생산 실적, 1996-2009년

연도	수확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단수 (톤/ha)	생산농가수	농가당 면적 (ha)
1996	149.7	966	7.1	2,392	62.6
1997	166.7	1,255	8.2	2,494	66.4
1998	141.2	1,324	9.0	2,296	61.1
1999	151.7	1,362	9.2	2,342	64.4
2000	133.3	1,084	8.3	2,129	61.9
2001	177.0	1,643	9.3	2,499	73.7
2002	144.0	1,192	8.3	2,261	65.1
2003	46.0	438	9.6	817	46.9
2004	66.0	553	8.3	1,564	41.4
2005	51.0	339	6.6	1,004	45.0
2006	102.0	1,003	9.8	1,753	59.6
2007	20.0	163	8.3	371	45.2
2008	2.2	18	8.2	38	56.8
2009	8.1	63	7.7	na	na

자료: ABS, 농업상품 카탈로그 No.7121.0, New South Wales 지역의 쌀마케팅위원회(2009), '통계' (Statistics).

표 8 호주 곡물년도별 쌀 수급 동향, 1980-2008년(정곡기준)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
1980	521	468	1	65	801.5	4.5
1981	611	573	1	66	925.8	4.4
1982	392	251	5	73	537.0	4.8
1983	452	327	1	71	636.6	4.6
1984	618	463	9	74	835.1	4.8
1985	491	390	10	75	654.7	4.8
1986	393	375	10	81	485.2	5.1
1987	540	430	10	110	490.9	6.8
1988	576	500	24	160	360.0	9.7
1989	605	461	28	172	351.7	10.2
1990	563	519	28	212	265.6	12.4
1991	806	607	31	250	322.4	14.5
1992	683	525	29	267	255.8	15.3
1993	774	500	28	262	295.4	14.8
1994	813	500	31	294	276.5	16.4
1995	691	550	36	302	228.8	16.7
1996	894	657	37	307	291.2	16.7
1997	947	537	38	313	302.6	16.9
1998	974	662	51	333	292.5	17.7
1999	787	610	46	345	228.1	18.2
2000	1,175	617	68	356	330.1	18.6
2001	888	247	65	360	246.7	18.6
2002	313	150	88	370	84.6	18.9
2003	395	175	88	380	103.9	19.3
2004	243	80	106	348	69.8	17.5
2005	716	326	94	400	179.0	19.9
2006	117	166	198	434	27.0	21.4
2007	13	36	188	343	3.8	16.8
2008	45	20	250	301	15.0	14.6

자료: FAO, USDA.

호주의 쌀 생산지역은 동남부의 뉴사우스웨일즈 주 남부와 빅토리아 주 북부 머리강(Murray River)과 달링강(Darling River)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머레이강 유역의 머리밸리 관개지역(Murray Valley Irrigation District)과 물럼비지강(Murrumbidgee River) 유역의 물럼비지 관개 지역(Murrumbidgee Irrigation Area), 물럼비지강과 머리강 사이의 코울엠펠리 관개지역(Coleambally Irrigation Area)의 3대 관개지역에서 쌀 관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머리밸리 관개지역은 데닐리퀸(Deniliquin)이 중심타운으로 쌀 도정공장이 위치해 있고, 물럼비지관개지역은 리튼(Letton), 코울엠펠리 관개지역은 코울엠펠리(Coleambally)가 중심타운으로 쌀 도정공장이 있다.

쌀 생산지역은 온난지역으로 일조량이 높고 병충해가 거의 없어 중립종쌀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품종별로 중립종이 78%를 차지하고 있고 장립종이 15%, 단립

종이 7%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호주에서 생산된 쌀의 85%가 수출되는데, 세계 중립종쌀 교역량에서 20~25%를 점유하고 있다. 쌀 수출액은 쌀 생산이 최대를 보였던 2001-02년과 2002-03년에 각각 354백만 달러, 371백만 달러였으며 그 후 연속된 가뭄으로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출액도 크게 줄어들었다. 2008-09년에 31백만 달러로 최대 수출년도인 2002-03년에 비해 8.4%에 그치고 있다.

쌀은 수출도 하지만 수입도 최근 크게 늘었다. 2001-02년 41.7백만 달러를 수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늘어 2008-09년에는 210.8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표 9 호주의 쌀 수출입액

단위: 백만 호주달러

구분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수출액	354	371	145	173	171	347	71	31
수입액	41.7	49.4	55.6	62.7	71.3	79.6	134.9	210.8

자료: 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9.12.

호주에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을 검사하여 적합한 토양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와 물관리기관으로부터 재배면허를 받아야 한다. 쌀 생산자는 자기 경작지의 1/3 이하 면적에서 쌀을 재배할 수 있으며 나머지 2/2 이상을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호주의 중립종 쌀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쌀 1kg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물의 양이 다른 국가보다 1/5 밖에 되지 않는다. 호주의 쌀 생산자는 현재 세계 평균 수확량인 ha당 5.4톤을 45년 전에 초과하여 현재 ha당 수확량은 9.7톤에 달한다.

호주의 쌀 생산에 이용되는 물의 양은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보다 적어 세계 평균 물 사용량의 50%에 불과하다. 단위 면적당 물 사용량은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다수확품종의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쌀 생산자는 수확후 토양에 남아있는 수분을 2모하는 다른 곡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다. 즉 호주의 쌀 생산자는 모든 물을 재사용하고 있다.

호주의 쌀 생산농가는 수확후 전량을 생산자들이 주주인 SunRice에 판매하고 있다. 2001년 174.4만 톤으로 사상 최대 수확을 올릴 때 2,000여 농가가 쌀을 생산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가뭄이 계속되면서 생산농가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009년 미곡년도(2008.4~09.3월)에는 200농가만이 쌀을 생산하였다.

호주의 쌀 생산자 조직으로 호주쌀생산자협회(RGA, Ricegrower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가 있는데, 1930년에 설립되어 1,500명이 소속된 쌀 생산자 협회이다.

협회의 역할은 쌀산업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 전국 관개자(灌溉者) 위원회 및 NSW 관개자 위원회, 기타 이해관계집단에게 쌀 생산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 또한 개별 농가의 특정 니즈(needs)에 봉사한다.

쌀협동조합회사(Rice Cooperative Limited; RCL)로 흔히 SunRice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RCL은 쌀의 구매자이면서 판매자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SunRice는 호주 쌀의 99%를 보관, 가공, 유통하고 있으며, 호주 쌀 수출의 85%를 취급하고 있다.

2010년도 쌀 생산여건은 2008년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머리-달링강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물(저수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호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은 쌀 생산 지역이 점차 건조한 상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unRice는 '물이 없다면 쌀도 없다'고 언급할 만큼 쌀 산업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매년 주 정부가 저수지와 댐에서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물 사용량을 할당하고 있는데 쌀에 대한 물 사용 순위는 가장 낮은 상태이다. 2003년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쌀 생산에 할당된 물의 양은 점차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쌀 산업은 직접적 영향을 받아 쌀 생산량 또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호주의 물 사용은 음용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호주의 쌀 산업은 강수량이나 저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주 쌀 산업의 부활 여부는 전적으로 향후 강수량과 물 할당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도 쌀 생산여건은 2008년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 4. 오주의 쌀기업 SunRice의 운영과 글로벌전략

SunRice의 역사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쌀 생산자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Riverina 지역의 Leeton 소도시에서 쌀 생산자협동조합도정회사(Ricegrowers Co-operative Mills Limited)를 설립하였고, 그 후 1955년부터 'Sun White'라는 자체 쌀 브랜드로 소포장 판매를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호주의 쌀 유통에서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제품의 품질 등을 강조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와 신기술 도입을 통해 SunRice는 혁신적인 다양한 쌀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SunRice는 2009년 9억 달러 매출액의 글로벌 쌀가공 식품기업이며, 호주에서 가장 큰 브랜드 가공식품 수출업체이다. SunRice는 2009년(2008/09년 회계연도) 기업 매출액이 기록적인 9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순수익도 7,68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9억 달러 매출액 증가는 전년도의 7억1천만 달러에 비하면 27%나 증가한 성과이다. 순수익 7,680만 달러도 1년전의 1,500만 달러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이다.

SunRice는 1950년 쌀 생산자들이 기금을 만들어 Riverina 지역의 Leeton 소도시에서 설립한 쌀 생산자협동조합도정회사로 시작되었다.

SunRice는 머리강 유역과 물럼비지관개지역에 쌀도정공장, 제분공장, 포장시설, 쌀가공공장, 쌀케익공장,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순수익 비율이 1년 전의 2.1%에서 8.5%로 크게 늘어났다. 농가에 지급되는 톤당 쌀가격(조곡 기준)이 450달러가 되었으며 최초로 주당 배당금이 22.5센트가 되었다<sup>1)</sup>. 1년 전인 2008년에는 농가에 톤당 328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이 지역의 극한 가뭄으로 쌀 생산이 2년 연속 바닥에 달하고 국제시장에서 중립종 쌀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로 의미가 크다.

호주의 쌀 생산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SunRice 매출액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것은 SunRice가 호주 국내의 쌀가공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쌀 기업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SunRice의 최대 매출성과는 글로벌 교역, 쌀식품사업 확장, CopRice 등 쌀 이외의 사료사업 등 투자 다양화 등 전략적 믹스와 운영비 절감의 결과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업 기반이 있는 SunFoods 주식의 65%를 전략적으로 매수하여 세계 중립종 쌀 시장이 요동칠 때 세계에서 몇 안되는 중립종 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을 잡은 것은 SunRice사의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SunRice는 호주 동남부지역인 뉴사우스웨일즈주(州)의 대표적인 관개농업지역인 머리강 유역(Murray Basin)과 물럼비지관개지역(Mullumbidgee Irrigation Area)에 위치한 리튼(Leeton), 코울엄밸리(Coleambally), 데닐리퀸(Deniliquin) 세 지역에 쌀도정공장, 제분공장, 포장시설, 쌀가공공장, 쌀케익공장, 사료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SunRice는 자회사들(subsidiary companies)을 만들어 쌀에 국한하지 않고 조미료, 통조림 등 가공사업과 곡물계분과 동물사료 제조업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식료품 서비스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올리브, 전채(前菜, antipasto), 양념, 쌀 및 생선, 과일, 채소 통조림을 제조, 물류, 판매하는 자매회사인 Riviana를 운영하여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또다른 자회사가 동물사료회사인 CopRice Feeds로 쌀 부산물을 이용하여 동물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리튼(Leeton), 통갈라(Tongala), 코브덴(Cobden) 지역에 3개의 사료공장이 있다. 개사료 브랜드로 Puppy Food, Dog Food, 고양이 사료로 Max's Cat Pet Litter, 경주마 사료로 NutriRice 등이 있다.

곡물저장회사인 AGS(Australian Grain Storage)도 SunRice의 중요한 자회사이다. 곡물저장시설이 리베리나(The Riverina) 지역에 18군데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sup>2)</sup>. 필자가 4월 9일 방문한 휘튼(Whitton) 지역에 -Griffith와 Leeton의 중간에 위치한 타운- 있는

1) 2010년 쌀농가 수취가격이 톤당 550 호주달러로 '09년 450달러에 비해 22% 높아졌다.  
2) The Riverina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 아래로 머레이강(Murray River), 중간에 물럼비지강(Murrumbidgee River)이 서쪽으로 흘러 달링강(Darling River)과 만나 남쪽으로 흐르는 호주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는 최고의 초원과 농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타운으로 그리피스(Griffith), 와가와가(Wagga Wagga), 리튼(Leeton), Wentworth, 데닐리퀸(Deniliquin), 앨버리(Alburi), 헤이(Hay) 등이 있음. 이 지역에 물럼비지 관개지역(Murrumbidgee Irrigation Area, MIA)이 있어 쌀농사와 포도, 시금치 등 관개농업이 성행하고 있음.

AGS의 곡물 건조저장시설(Bulk Storage Facilities)은 1920년대에 설치된 4개의 건물과 최근 현대식으로 건설된 1개의 건물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대식 건물의 1회 저장 용량은 32,000톤이며 건축비가 900만 호주달러(한화 환산 약 100억 원)이다. 1칸에 2,000톤 씩 저장하는 저장고가 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장고 바닥에는 쌀 수분 비율을 줄여 건조시키기 위해 5개의 흡통에 깔려 있는 강제통풍방식의 건조시스템이다. 곡물을 품종, 등급별로 구분 저장하는 컴퓨터 자동분류기가 설치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중미, 요르단 등 중동지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군도, 뉴질랜드 등 전세계 60개국 이상에 매년 50만톤에 달하는 브랜드 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SunRice는 호주 뿐 아니라 미국, 파푸아뉴기니아(PNG), 요르단, 솔로몬군도에 쌀 도정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쌀 조달을 호주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상대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SunFoods 지분 65%를 사들여 대주주로서 미국 쌀 시장의 거대 공급자가 되었으며, 중동지역에는 요르단에 Aqaba Processing 도정 포장회사를 만들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SunWhite라는 경쟁력있는 브랜드쌀을 판매하고 있다. SunWhite라는 상부브랜드(umbrella brand) 아래 개별 제품브랜드로 Sunwhite Basmati, Parboiled and Jasmine 등이 있다. 또한 쌀과자(Rice Cakes)와 마이크로웨이브 쌀 등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싱가포르 시장에 캥가루(Kangaroo)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주요 슈퍼마켓체인에서 브랜드쌀을 잘 판매하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미국의 자회사인 SunFood를 이용하여 브랜드쌀 판매를 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Island Sun과 SunWhite 브랜드가 견고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시장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원을 개발하고 포장 수준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0 SunRice의 글로벌 쌀 도정 및 포장판매회사

국가	쌀 도정 및 포장판매회사	내용
미국	SunFoods	- 캘리포니아 소재 쌀 도정 및 판매회사로 SunRice에서 65% 지분 참여 - 브랜드: HINODE
파푸아뉴기니아(PNG)	Trukai Industries	- 쌀 도정, 포장 및 판매회사로 SunRice가 대주주 - PNG에서 최대이며 가장 성공한 쌀 유통업체 - 브랜드 Trukai RICE
요르단	Aqaba Processing Company	- 도정, 포장회사로 SunRice가 대주주 - 브랜드: SunWhite는 걸프만협력국가들 중 선두 칼로스 브랜드
솔로몬군도	Solomons Rice Company	- SunRice가 지분 전체 소유한 Honiara 유통회사 - 브랜드: Solarais

SunRice는 글로벌 쌀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수립

SunRice는 국내 600명, 해외 1,200명이 고용되어 총 1,8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여 추진하고 있다. TV 상업광고를 위해 호주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관왕인 스테파니 라이스(Stephanie Rice)를 새로운 브랜드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으며, UN 아동기금인 유니세프(UNICEF)의 태평양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도 한다.

SunRice는 국내외로 1,8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호주 내에는 60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해외에 1,200명이 고용되어 있다. 또한 호주, 파푸아뉴기니아, 일본, 요르단, 미국, 싱가포르, 솔로몬군도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SunRice는 식용쌀(table rice), 쌀가루, 쌀스낵에서부터 동물사료제품까지 1,100개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여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 5. 시사점

호주의 쌀 농업은 지난 2001년 17만 7천ha의 면적에 조곡기준 164만 톤을 생산할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였지만 그 후 극심한 가뭄 피해로 인해 1만 ha 면적, 20만 톤의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2009년 후반부터 강수량이 회복되어 8년 연속 가뭄에서는 일부 벗어났지만 많은 저수지들이 여전히 말라있고 향후 강수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쌀 농업이 빠른 기간 내에 크게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국으로서 위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의 협동조합 쌀 기업인 SunRice는 세계에서 쌀을 매입하여 도정, 가공해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호주 내의 생산량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지금과 같은 SunRice의 쌀 가공제품 개발력과 전세계적인 판매망, 도정 및 가공회사 네트워크라면 향후 세계 쌀 가공제품 시장, 브랜드쌀 시장에서 SunRice의 위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길, 병계 등 국제곡물메이저들은 밀, 옥수수, 콩 등 원료곡물에 대한 독과점력을 발휘하지만 SunRice는 세계의 50% 인구가 주식으로 소비하는 쌀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어 쌀 가공제품에 대한 영향력은 또다른 독과점 능력이라 여겨진다.

글로벌 수출농기업은 개념 자체부터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SunRice는 호주 내 쌀 생산자들의 협동조합 기업이지만 도정공장과 가공회사를 호주 뿐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아, 미국, 요르단, 솔로몬 군도 등 세계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세계적인 판매망과 해당지역에 적합한 브랜드명까지 만들어 글로벌 마케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수출농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개념의 수출농기업 경영과 마케팅전략 만이 가능하다. 쌀 한 품목으로도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듯이 예컨대 쌀, 버섯, 과

일, 축산물 등 단일 품목으로도 얼마든지 글로벌 수출농기업이 될 수 있다. 원료 농산물로도 글로벌 수출농기업이 될 수 있지만 원료 생산이 적고 외국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다면 오히려 원료를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 조달하여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으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판매하는 글로벌 수출농기업이 가능성 면에서 더 높을 수 있다.

#### 참고문헌

ABARE, Australia Commodity Statistics 2009, 2009.12.

ABARE, Australian Commodities, March quarter 2010,

ABARE, Australian grains, 2010, 11.

SunRice, SunRice Briefing, 8 April 2010.

SunRice, Annual Report 2009. 2009.4.30.

농수산물유통공사, 호주의 경제동향과 농업현황, 2009.3.

<http://www.rmbnsw.org.au/?page=statistics>